

身土不二의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합양산 토종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리 합양산 재배의 적지
● 향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과 동내
● 대양은 연구용 특한 우수 품종 생산

北불보살 남쪽에 나투신 뜻은

북한 문화재 첫공개... '문화재 통일' 첫발



고구려 '영강7년명 금동광배'. 74년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출토. 58자의 명문이 새겨진 미륵불 광배.



신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전쟁 당시 경남지역에서 출토.



신라시대 '금동석가여래입상'. 77년 발굴.



고구려시대 '금동11면8비 관음보살입상'. 81년 평양시 외산동에서 발굴.

사상과 이념의 벽에 가려진 채 우리의 기억 너머에 있던 북한의 불교 문화재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경향신문사 산하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가 북한의 '조선 아세아·태평양 광화위원회'와 자료교류계약을 맺고 북한의 비공개문화재 50여점을 포함한 문화재 1만여 점의 사진 및 관련 자료를 입수, 첫 공개한 것.

비공개문화재 가운데 '영강7년명 금동광배' '연기7년명 1광3존불' '금동지장보살상과 불함'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석가여래입상' '금미륵보살좌상' '금동11면8비관음보살입상' '금동석가여래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분장자기 불상집' 등 14점은 1960년 이후 발굴돼, 지금까지 남한에 공개되지 않은 성보.

당대 사람들의 삶과 정신적 이상향, 미술 경향, 작가정신 등이 녹아든 불교 문화재들은 우리 나라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어 첫 공개된 북한 불교성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끌리었던 불교 문화재는 고려시대 '금동석가여래좌상' (높이 26cm), 지난 77년 경북 함안군 함암리에서 출토된

하고 있다. 반면 장교수는 "부처님을 공안하는 감상은 앞을 다 꿰어 하는게 전통양식이며, 또 '술취'는 '금불상'이 아닌 제작자의 이름이다"고 말하고 있다.

고구려시대 '영강7년명 금동광배' (높이 22cm)도 눈길을 끈다.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출토된 광배는 당시 불에 타서 아랫부분이 일부 녹아 떨어진 채 발견됐다.

연꽃모양으로 된 광배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부각되어 있는데 중심부에는 직경 3.5cm로 된 연꽃무늬가 있다. 광배 뒷면에는 '영강 7년 신년에 죽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미륵존상을 만든다...'로 시작된 58자의 글이 7줄로 새겨져 있어, 이 광배의 불상이 미륵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구려 금속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며 우리나라 금석학 연구에도 의의가 있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시대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7.7cm) '금동지장보살좌상' (높이 15.1cm)은 83년 강원 금강군 내강리 은정굴에서 함께 출토된 불상, 두광과 신광(佛光)을 은곡선으로 나타낸 광배를 지니고 있고 인간을 형상화한 것 같은 동심한 상호로 낮고 간소한



조선 '금동아미타존불좌상'. 83년 강원 금강군 내강리에서 출토됐다. 아미타여래(중앙) 지장보살(왼쪽) 관음보살(오른쪽)등에서 원·영나라 불상양식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영강7년명 금동광배' 등 성보 14점 불교미술사 공백 메울 자료 평가

이 불상은 근엄한 얼굴 표정과 가슴 앞에 가로지른 속옷띠, 리본식 매듭과 풍아픈 무릎 등 주로 고려 후기의 불상에서 보이는 형상수법을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 영향 아래 놓였던 삼국시대 불교미술과 달리 한국적 불교미술의 특색이 드러나는 시기. 작품이 거의 없는 13~14세기 작품으로 추정돼 한국 불교미술사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획기적인 자료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분장자기불상집' (높이 17.7cm)은 당초 북한에서 '감실(監室)'로 분류됐지만, 장충식교수(동국대박물관장) 등 국내 학계에서 '일반도자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비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술품. 불상집의 몸체에는 9개의 구멍이 대칭으로 뚫려져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보리수나무 연꽃가지 두 마리의 새와 연꽃을 새겼는데 한 쪽 연꽃잎에는 '술취(김금신)'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북쪽에서는 9개 구멍은 '9종모임' 즉 국학세계로 가는 아홉 가지 길이며, '술취'는 금으로 만든 부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

연꽃받침대 위에 앉아 있는게 특징이다. 이 불상들은 몸의 비례가 해부학적으로 정확하며 뛰어난 조각기법, 세련된 조형미를 선보인다. 장교수는 "탑을 해체·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며 "원·영나라의 영향이 남아있어 조선시대 불교미술사 흐름 파악에 좋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고려시대 '금동11면8비 관음보살입상' (높이 22cm)은 한눈에 원나라 불교양식이 풀린 풍간다. 전체적인 형태는 티벳불교 양식이지만, 엄숙한 얼굴에서 고려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에서 발굴됐다.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온 5세기 작품인 '금동지장보살상과 불함'은 보살의 격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조각수법도 완성되지 못했지만, 고구려 초기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장보살(8.5cm)은 오른손에는 석장을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평양 대성산에서 출토됐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높이 20cm)과

'금동석가여래입상' (높이 8cm)은 7세기 초 신라인의 불상이 담긴 불상. 조선중앙역사 박물관에 전시된 반가사유상은 남한의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광동사에 소장된 반가사유상과 비교해 손색없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가여래입상은 근엄한 표정에 두 눈썹은 반달형이고 귀쪽으로 약간 들린 눈과 공개 내려온 코 등은 섬세하며 균형이 잘 잡혀있다. 특히 옆으로 솟아오르는 불꽃무늬의 장대는 삼국시대의 수법을 그대로 이었다는 평가다.

74년 금강산 만곡동 금강대에서 발견된 금미륵보살좌상(높이 6cm·분지 237호 1면사지 참조)은 고려 불상에서만 볼 수 있는 곡두리 같은 독특한 관을 쓰고 원통형 받침대 위에 오른쪽 다리를 세우고 걸터앉아 있는 형상. 이들 불교성보들은 한민족문화네트워크 연구소와 문화관광부가 10월 오픈하는 '남북문화유산'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글=오종욱 기자
사진제공=경향신문



조선 '분장자기불상집'. 83년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에서 발굴. 북한에서 '감실'로 분류됐지만 남북 문화재 전문가들은 '일반도자기'로 보고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구려 '금동지장보살상과 불함'. 68년 평양시 대성산에서 출토. 발굴 당시 이 보살상은 불함에 들어있었다. 머리에 두건을, 손에 지팡이와 구슬을 든 것으로 보아 지장보살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금동석가여래좌상'. 77년 평안북도 함안군 함암리에서 출토.

한민족문화네트워크 이 정부소장 "남북 문화재 통합연구 계기"

한반도 문화유산CD 10월 인터넷 소개

남·북한 문화재가 통합돼 반쪽이 머물렀던 한반도의 역사를 하나로 복원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한 문화재 통합을 향한 대장정에 길을 지난 2년간 묵묵히 걸어온 이정식(경향신문사 부설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부소장)은 이질성 극복 및 '반쪽연구'에 그친 한반도 역사와 문화의 복원을 위해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당국의 승인에 의해 북측에 남북간 문화교류 정보화 사업을 제외한 이씨는 98년 2월 북한의 '조선 아세아·태평양 광화위원회' (이하 광화위원회)와 '문화재 자료교류계약'을 맺고, 9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문화유산 조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비롯 북한 유적·유물을 둘러봤다. 이때 북한 문화보존·사회과학원 등의 학자들과 만나 문화유산의 남북공유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북한의 광화위원회가 비디오, 출판물, CD 등 다양한 형태로 보내온 자료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50여점과 3,000여점의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모두 1만여점이 다. 북한이 지난 94년 '문화유물 보호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문화재가 600여건임을 감안할 때 북측의 귀중 문화재가 대부분 망라된 셈이다.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와 문화관광부는 10월 '남북문화유산' 사이트를 오픈하고, 북한측이 직접 제공한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 부소장은 "법타스님이 2년간 소개해준 북측 문화재 관련 인사들과 교분을 쌓은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양쪽에서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남북한 문화재를 실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